

예상보다 이른 ‘美 대선 모멘텀’ 반영… 증시 불확실성 커져

코스피, 2900선 목전 ‘숨고르기’
日, 최고가 행진 중 2.45% 하락
美·中·홍콩 증시 나란히 상승세

“美 대선토론 이후 모멘텀 영향력
트럼프 당선 시 국내증시 약세 전망”

상승세를 보이던 한국·일본 등의 증시가 주춤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중국 증시는 정책적 호조가 반영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시장에서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 모멘텀이 조기 반영되면서 증시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11일까지 3.34% 오른 코스피는 12일 전 거래일보다 1.19% 떨어지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2900선에 바짝 다가섰지만 11일 2891.35를 찍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12일 코스피는 시가총액 상위 1, 2위인 삼성전자(-3.65%)와 SK하이닉스(-3.32%)가 동반 급락하면서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34.35포인트(1.19%) 하락한 2857에 마감한 12일 오후 서울 증시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2.05포인트(0.24%) 하락한 850.37,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0.70원 오른 1379.40원에 마감했다. /뉴시스

2857.00에 하락 마감했다.

일본 닛케이225 지수(닛케이평균주가)도 11일 42426.77을 기록하는 등 9일부터 3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가를 이어갔지만, 12일에는 전장보다 2.45%나 떨어진 채로 마감했다. 일본 역시 반도체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이날 도쿄일렉트론은 6.18%, 어드반테

스트는 5.57% 급락했다. 패스트리테일링 역시 4.85% 하락하면서 일본 증시를 끌어내렸다.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이른 미 대선 모멘텀이 다가오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황준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대선 토론 진행 이후 대선 모멘텀

의 시장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경합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시그널들이 포착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중심의 정책 해석이 일부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시 국내 증시는 약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상훈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트럼프 재임 당시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했고, 이후 중국과 한국 증시의 상대적 부진이 심화했다”며 “트럼프의 재선으로 미·중 무역분쟁이 재발한다면 한국과 중국 증시가 동반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재임 당시 코스피지수는 최고 2600선에서 최저 1890선까지 내려가며 큰 폭의 등락을 보였다. 11월 가장 큰 이슈로 꼽히는 미국 대선의 영향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황준호 상삼인증권 연구원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유력한 상황”이라며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더욱 극대화될 것이고, 이는 위험자산 선호심리를 위축시켜 자산시장 전반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날 미국과 중국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12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는 다우 지수는 0.62%, 스탠더드앤드푸어(S&P) 500은 0.55%, 나스닥은 0.63%씩 일제히 상승했다. 특히 다우는 4만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에 가까워졌다. 시장에서는 전날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4년여 만에 전년 대비 하락한 호재가 뒤늦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시아 주요 증시 중에서는 중국, 홍콩 증시가 나란히 상승했다. 상해종합지수와 항셱지수는 이를 연속 상승하며 각각 2971.30, 18293.38에 마감했다. 다만 상해종합지수는 등락하며 혼조를 보였는데, 전날 공매도 단속을 중심으로 한 안정화 대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증권가, 금투세 유예 가능성에도 ‘부담’

이재명, 금투세 유예발언 ‘주목’
업계 “도입시기라도 결정해줘야”
금투세 시행 시 ‘주식이민’ 우려

증권업계가 금투용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가능성과 관련해 복잡한 속내를 보이고 있다. 여야 정치권의 유예 분위기 확산 자체는 반기지만 그로 인한 ‘불확실한 상황’은 부담스러워하는 모양새다.

14일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는 물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원한다”면서도 “폐지가 어렵다면 도입 시기라도 오락가락하지 말고 조속히 결정해주는 게 자본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들은 자비로 금투세 도입을 대비하며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며 소모적인 정치 논쟁을 멈춰 줄 것을 요구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6개월 후 시행을 앞둔 금투세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금투세를 걷을 수 있는 전산 시

스템 구축이 완료되지 않았을 뿐더러, 주요 고객인 1400만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도 금투세 도입에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투세는 금투투자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채권 등 250만원) 이상일 때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22~27.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위안대로라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어야 하지만 2022년 말 여야당 합의로 도입 시기가 2년 미뤄졌다.

2년의 유예시기가 다 돼가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금투세가 시행되면 이른바 ‘증시 큰손’들이 국내시장을 꺼려 해외 증시로 ‘주식 이민’을 갈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은 금투세 유예 기간 중에 더 심화한 모습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주식 이민이 아니라도 큰손 투자자가 세금 회피성 매물을 연탈에 쏟아낼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

계다가 금투세 시행 전인데도 국내

개인 투자자들까지 대거 ‘서학개미’가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국내외 경제 이슈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내 투자의 해외유출이 경기 회복 지연 및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야권 내에서도 ‘금투세 유예’를 두고 대립각이 세워졌다. 이재명 전 대표 표는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 주식시장은 성장하는데 한국 주식시장만 역주행하고 있다”며 “(금투세 시행) 시기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12일 또 다른 당 대표 후보인 김두관 전 의원은 “이 후보가 금투세 시행 유예를 말하는 것은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유예는 갈수록 커지는 우리 사회의 자산 양극화에 동조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이달 주가 8% 하락에도 목표가 상향 조정

metro 관심종목
현대차

전기차 판매량 조작 의혹에 위축
증권업계, 호실적·주주환원 기대

올들어 상승 랠리를 펼쳤던 현대차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증권사는 2분기 호실적, 주주환원 강화 등으로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보고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2일 현대차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51% 하락한 27만1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현대차 동차의 인도 법인 상장 소식 등으로 연초부터 강세를 보여왔던 현대차의 주가는 이달 들어 약 8% 하락했다. 현대차 동차 미국 판매 법인(HMA)이 전기차 판매량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일리노이주 네이플턴 오로라 임포트 등 현대차 딜러

그룹은 HMA가 전기차 판매량을 부풀리고 이에 가담하지 않는 딜러를 차별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5일(현지시간)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현대차에 대한 투자심리도 크게 위축됐다. 실제로 이달 기관투자자 순매도 1위 종목은 현대차로 2191억여원을 팔아치웠다. 외국인도 현대차를 1074억 원 순매도했다. 김규원 대신증권 연구원은 10일 “연초 이후 밸류업 프로그램, 호실적 기대감에 주가 상승이 지속됐지만, 판매량 조작 논란이 불거지며 주가가 하루 만에 3% 하락했다”며 “차익 실현 욕구가 자극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는 실적 안정성, 자사주 매입 등으로 현대차의 주가가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신차 효과로 하반기 안정적인 실적이 전망되고, 자사주 매입을 통한 수급 효과, 신공장 가동에 따른 모멘텀(상승 동력), 부담 없는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을 감안하면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관희 기자 wkh@

SK스퀘어, ‘웨이브·티빙’ 합병 결렬설에 주가 약세

웨이브 지분 40.5% 보유한 최대주주 SLL중앙, 원인 제공 의혹에 ‘반박’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와 ‘티빙’의 합병 협상이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웨이브의 최대주주인 SK스퀘어는 수익 개선 등 합병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최근에는 합병 결렬설이 불거지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웨이브 지분의 40.5%를 보유하고 있는 SK스퀘어는 직전 거래일이었던 12일 전일 대비 1.31% 내린 10만5300원에 장을 마감

했다. 웨이브와 티빙의 합병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에 영향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티빙의 주요 주주인 SLL중앙(12.75%)이 이번 협상에서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해 협상이 지연됐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그러나 12일 SLL중앙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협상에 우호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일단락 됐다.

웨이브는 오는 9월 지상파 3사(KBS, MBC, SBS)와의 콘텐츠 계약이 만료된다. 웨이브 가입자들의 주 이용 목

적이 3사의 콘텐츠 시청인 만큼 웨이브에게는 독자적인 콘텐츠 수급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 OTT 업계는 저마다의 대표 콘텐츠를 만들어 고정 이용자 확보에 나서고 있다. 애니메이션 전문 OTT인 라프텔은 전년도 매출액 297억원, 당기손익 24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국내 OTT 중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다. 애니플러스, 애니맥스 코리아 등 다양한 방송사의 애니메이션을 전부 감상할 수 있어 이용자의 충성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전지원 수습기자 jjw13@

코원테크, 75.9억 규모 전환사채 소각

전환사채 중 23%… 지분율 2.81%
“잠재주식 물량 해소 이슈 등 최소화”

이차전자자동차시스템 전문기업 코원테크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75억 9000만원 규모의 전환사채 소각을 결정했다고 지난 12일 공시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소각하는 전환사채는 지난해 9월 27일 코원테크가 콜옵선행사를 통해 취득한 것으로, 2022년 7월에 발행한 총 330억원 규모 제3회차 전환사채 중 23%에 해당하고 지분율로는 2.81%(신주 31만

3170주)에 달하는 수준이다.

코원테크 관계자는 “주주 가치 제고 및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금번 전환사채 소각을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잠재주식 물량의 해소 및 전환사채 관련 이슈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방 시장의 성장 둔화와 글로벌 배터리사들의 투자 위축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앞으로 다양한 주주친화정책을 펼칠 예정이며, 차세대 전고체 라인 장비 등 신규 장비 개발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